

# ‘고의 살인’ vs ‘졸음운전’...21년만에 진실 떠오를까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 재심 현장 검증

### 검찰-변호인, 사고 당시 차량과 유사한 1t트럭 직접 운전 추락 지점·바위 위치 등 이견...당사자 복역 중 백혈병 사망

21년 전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발생 당시 굵이진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시속 55km 이상으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오후 2시에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1t화물차가 저수지를 향해 수차례 주행을 했다. 재판의 핵심쟁점인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락인지, '고의적 추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가 찾은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 9일 밤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A씨 화물차가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진 도로다. A씨는 저수지에서 빠져나왔고 아내는 익사했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살인죄가 확정돼 무기수로 복역하다 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져, A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증에 앞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과 당시 사고 현장 잠수 차량 인양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차량 발견 지점을 확인했다.

화물 차량의 운전대는 박 변호사와 검찰이 번갈아 잡았다. 사고 당시 A씨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과 유사한 1t트럭이 주행한 도로에는 사고 당시의 차선을 고려해 흰색 점선도 그려졌다. 사건 당시 비가 왔으나 노면 상태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 검증 전 차량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조향(자동차 핸들을 움직임)없이 출발지인 약속터부터 삼거리를 지나 저수지 방향으로 갈 때 차량의 방향에 집중했다.

검찰 측과 박 변호사가 운전한 차량의 위치는 왼쪽 앞바퀴 기준 1.3m 차이가 났다. 검찰 측이 운전했을 당시 변호인 주장보다 더 왼쪽에 차량이 있었으며 차량 진입방향도 왼쪽으로 틀어졌다.

검사는 "추락지점까지 도로는 높낮이 기록과 굴곡이 심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길이었다. 졸음 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집으로 가려면 오른쪽 도로로 가야 했지만 목적지가 아닌 저수지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건 아내 살해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졸음운전 양상은 다양하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차선을 지켜서 주행했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 없다"며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인 조향이 있었느냐의 여부지만 이를 확인한 방법이 없을뿐더러 직선도로로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열린 3일 오후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사고 당시 차량을 인양한 박은준 잠수사가 차량 인양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왼쪽). 사고 당시 차량과 유사한 1t 트럭이 저수지를 향해 운행중이다.



방향으로 그대로 주행했을 때 추락 지점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검찰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최소한 현장에 바퀴자국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은 주장하는 바와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짜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졸음운전시 핸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붙어 운전할 수도 있다며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은 차량이 저수지로 빠지기 직전 바로 앞에 위치한 바위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검사는 "A씨가 바위를 피해 일부러 방향을 틀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박 변호사는 "차량은 철제 표지판을 피해 추락했는데 바위를 피하려고 충격이 더 컸을 철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맞섰다.

또 이날 A씨 차량을 직접 인양한 잠수사가 인양 당시를 증언했다.

사건 당시 차량을 인양했던 박은준 잠수사는 "저수지 인근에서 수색했으나 차량이 나오지 않아 진행방향 그대로 주행했을거라 생각하고 일직선으로 연장해 물속을 뒤졌고 20m 지난 지점에서 차량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2시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진도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5·18 왜곡 단초 제공...진상조사위 보고서 수정하라”

### 오월정신지지기 범시도민대책위 등 광주 시민단체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종합 보고서의 수정을 촉구했다.

개별조사보고서가 왜곡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수라는 것이다.

오월정신지지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 일부 전원위원들이 왜곡과 부실 논란에 휩싸인 개별보고서 내용에 기초해 5·18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종합보고서가 5·18을 왜곡하려는 일

부 전원위원들의 악의적 주장에 놀아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인 5·18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신빙성이 낮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더 중요시 해 무수한 피해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왜곡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진실로 확정된 대법원의 사법적 판결 등까지 거꾸로 뒤집고자 하는 일부 위원들의 왜곡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전원위원들은 밤을 새서라

도 개별보고서의 내용을 바로잡는 종합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며 "오직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개별 보고서의 문제점과 그 발생 과정을 낱알이 규명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 활동 종료 시한에 앞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 중이다.

국민의힘 추천 진상조사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종합보고서 초안 중 '권 일병 사망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시민사회로부터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조사 내용이 수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호남권 4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443명 선발

### 총 정원의 64.3%...전북대·원광대 '전북 출신' 더 뽑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호남지역 4개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모두 443명을 선발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북 지역 의과대학 4곳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총정원 634명 중 64.3%인 44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정원 163명 가운데 130명(79.8%)을, 조선대는 정원 150명 중 100명(66.7%)을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선발한다.

전북대는 정원 171명 중 111명(64.9%)을, 원광대는 정원 150명 중 102명(68%)을 호남권과 전북지역에서 뽑는다.

전형 대상의 지역범위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권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대와 원광대는 전북과 호남권(광주, 전남·북)으로 구분해 별도 선발한다.

가령 전북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으로 111명을 뽑는데 전북권은 56명을 선발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포함된 호남권은 18명만 뽑는다.

원광대도 102명 가운데 전북권은 65명인데 반해 호남권으로 배정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37명이다.

시교육청은 전북대와 원광대가 지역범위를 전남대와 조선대처럼 호남권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들 학교를 방문해 지역범위 통일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6월 수능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고3 교사 대상 대입지원전략 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 19~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29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5 대입 대비 광주진로전략 박람회도 준비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장성호 공원에서 잔디 깎던 60대 기계에 깔려 숨져

장성호 문화예술공원에서 잔디를 깎던 60대 기계에 깔려 숨졌다.

3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장성군 북하면 장성호 문화예술공원에서 A(64)씨가 탑승

식 예초기에 깔렸다. 예초기 깔날에 하반신을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잔디를 깎던 중 경사로에서 예초

기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장성군 기간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은 장성군의 안전관리 책임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